

News

신용대출 열흘 새 1.1兆 폭증...금융당국 '핀셋 규제' 나선다

한국경제

5대 은행에 따르면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125조4172억원으로 집계...8영업일 만에 1조1425억원 급증한 액수
연이은 경고에도 신용대출이 폭증하자 금융당국이 규제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는 '우회로'로 활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

전경련 "작년 한계기업 18%...OECD 중 다섯번째로 높아"

연합뉴스

OECD 가입 24개국을 대상으로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17.9%로 조사 대상 국가 중 다섯 번째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5.4%에서 지난해 17.9%로 2년새 2.5%포인트 증가...증가폭으로 따지면 조사 대상 24개국 중 6번째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은행들 글로벌 전략도 '비대면'으로 재편

아시아투데이

은행들은 기존에 계획했던 글로벌 확장 계획을 보류하고 '당분간은 지켜보자'며 관망세를 유지하는 분위기...대신 은행들은 글로벌 부문에서도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
글로벌 버전 모바일뱅킹 앱을 업그레이드 해 내놓거나 해외 유력 업체와 협업 시도, 서비스 국가 확대 등을 추진

빅테크와 손잡은 시중은행...우리은행, 카카오페이와 금융·플랫폼 융합 '맞손'

이투데이

우리은행, 카카오페이와 '업무협약'을 체결...오픈 API 연동을 통한 비대면 대출 신청, 고객 맞춤 디지털 금융상품 및 서비스 공동 개발 등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
플랫폼에 강점을 갖고 있는 빅테크와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더불어, 양사는 디지털 마케팅을 공동 추진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화에...설계사들 "선택권 달라"

서울경제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화를 예고한 가운데 약 900억원의 추가비용 부담
보험업계는 물론 법 개정의 수혜집단으로 꼽히는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7,000명가량의 설계사가 해촉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

한화손보, 약사손보 매각 작업에 변수?

서울경제

한화손해보험, 자회사인 캐롯손해보험 지분 전량을 그룹 계열사인 한화자산운용에 매각...일각에서는 한화손보 매각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도...
한화생명은 한화손보 매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그러나 한화손보가 매물로 거론될 경우 약사손해보험의 매각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재용 공소장에 48회 언급된 삼성증권...금감원, 면밀 검토

연합뉴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확보하고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작업에 착수
공소장에 적시된 것처럼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이에 따라 증권사는 물론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기 시작

'패밀리오피스'가 뭐길래...대형 증권사들 선점경쟁 치열

뉴시스

초고액자산가를 잡기 위해 증권가들이 패밀리오피스 경쟁이 치열...이미 증권업계 대부분이 비슷한 서비스를 진행해왔으나 제대로 된 패밀리오피스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진행...관계자,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기 시작해 차별화에 나서는 증권사들이 나올 것"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